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 '고고 챌린지' 동참

황진구 롯데케미칼 기초소재사업 대표가 '고고 챌린지(Go Go Challenge)'에 동참했다. 고고 챌린지는 생활 속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작된 챌린지다. 일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 1가지와 할 수 있는 행동 1가지를 약속한 뒤 다음 도전자를 지명하는 릴레이 형태로 진행된다. 황진구 대표는 SK 가스 윤병석 대표이사의 추천으로 이번 챌린지에 참여했다.



LG에너지솔루션, 다음달 말 코스피 상장

시가총액 최대 70조... 'IPO 대어' LG엔솔 온다

상장하면 시총 3~4위 차지 예상 최대 12조 7500억 투자 재원 확보 희망공모가 25만7000원~30만 원 일반 청약자에 전체 물량 25% 배정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 오창공장 전경. 사진제공 | LG에너지솔루션

역대 최대 규모 기업공개(IPO)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1월 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을 목표로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7일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공모 절차에 돌입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밝힌 총 공모주식수는 4250만주다. LG에너지솔루션이 신주 3400만 주를 발행하고 모회사인 LG화학이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 지분 2억 주(100%) 중 4.25%에 해당하는 850만주를 구주매출로 내놓는다. 총 공모주식수는 공모 후 LG에너지솔루션의 전제발행주식수(상장예정주식수 2억 3400만 주)의 18.16%에 해당한다.

LG에너지솔루션의 주당 희망공모가액 범위는 25만 7000원부터 30만 원이며, 이에 따른 예상 시가총액은 60조 1380억 원에서 70조 2000억 원이다. 이는 8일 오전 기준 코스피 3~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8일 오전 11시 기준 시가총액 1위는 삼성전자 464조4491억 원, 2위 SK하이닉스 88조883억 원, 3위 네

증권신고서 제출	2021년 12월 7일
수요예측(국내)	2022년 1월 11일~1월 12일
공모가액 확정공고	1월 14일
청약	2022년 1월 18일~1월 19일
유가증권시장 상장	2022년 1월 말 목표

*추후 일정 확정 후, 공시시스템 통해 안내

총 공모 주식수	4250만주 (신주모집 3400만주, 구주매출 850만주)
주당 희망공모가액	25만7000원~30만 원
공모 규모	10조9225억 원~12조7500억 원
상장예정주식수	2억3400만주
예상 시가총액	60조 1380억 원~70조2000억 원

이버 65조1304억 원, 4위 삼성바이오로직스 59조8793억 원 순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LG화학은 이번 공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최대 12조 7500억 원(LG에너지솔루션 10조 2000억 원, LG화학 2조 5500억 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기업공개(IPO)를 통해 확보한 공모 자금을 ▲국내 오창공장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시설자금 ▲북미·유럽·중국 등 해외 생산기지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리튬이온전지·차세대전지 등 연구개발 및 제품 품질 향상 및 공정 개선을 위한 운영자금 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 CEO 권영수 부회장은 “금번 기업공개로 통해 급성장이 예상되는 2차전지 시장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세계 최고 수준의 품질과 경쟁력을 갖춘 배터리 연구개발을 지속해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의 2차전지 제조업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주라도 더 받으려면?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공개로 꼽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상장이 두 달여 앞

으로 다가오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국내에서 내년 1월 11일~12일 양일간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하고, 1월 18일~19일 청약을 거쳐 1월 말 중 코스피에 신규 상장할 예정이다.

대표주관사는 KB증권과 모간스탠리다. 해외증권사는 개인이 청약할 수 없기 때문에 KB증권을 대표주관사라고 보면 된다. 공동주관사는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골드만삭스, 메릴린치, 씨티그룹로벌마켓증권이다. 인수회사로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이 참여한다.

전체 공모 물량 가운데 25%가 일반 청약자에게 배정된다고 하면 공동 대표주관사인 KB증권은 486만9792주, 공동주관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는 각각 243만4896주, 인수회사인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에는 각각 22만1354주가 일반 투자자 몫으로 배정된다.

중복 청약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 곳의 증권사를 선택해야 한다. 각 증권사가 배정받은 물량과 최종 경쟁률에 따라 배정되는 주식 수가 다르기 때문에 막판까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질 전망이다.

청약 당일에는 개와 개설이 안 되는 증권사도 있기 때문에 청약 전날인 1월 17일까지는 원하는 증권사의 계좌를 미리 개설해둬야 청약을 넣을 수 있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시코르 강남점

신세계 '시코르', 디지털 뷰티 플랫폼 변신

럭셔리 브랜드 적극 도입...라이브 뷰티 컨설팅 강화

신세계백화점의 뷰티 편집숍 '시코르'가 디지털 변신에 박차를 가한다.

코로나19 이전 오프라인 체험형 콘텐츠에 중심을 둔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온라인 채널인 시코르닷컴을 강화하고, 뷰티테크(bauty+technology)를 결합하는 온·오프라인 연계(O2O) 디지털 뷰티 플랫폼으로 변신을 꾀한다.

시코르닷컴은 디지털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브랜드와 서비스를 적극 도입할 예정이다. 백화점에서만 경험할 수 있던 럭셔리 브랜드를 늘려 언제 어디서나 시코르닷컴에서 리브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42개 럭셔리 브랜드를 70여 개로 확대하고 니치 향수 등 고객 수요에 맞는 상품군을 다양화한다.

온라인 고객 유입을 늘릴 수 있는 실시간 라이브 뷰티 컨설팅, 랜선 뷰티쇼, 버추얼 컬러 테스트 등 차별화된 콘텐츠도 선보인다. 또 매장에서 진행되는 라이브 커머스 등은 오프라인을 연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

김묘순 신세계 코스메틱사업담당 전무는 “시코르가 온·오프라인 모두를 아우르는 럭셔리 뷰티 플랫폼으로 재도약한다”며 “2030 MZ세대를 겨냥한 차별화 콘텐츠를 선보여 2024년까지 매출 1500억 원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동행복권, 사행산업 최초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2021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수여식에 참석한 동행복권 김세중 대표. 사진제공 | 동행복권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대표이사 조형섭·김세중)은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1년 하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수여식에서 신규 CCM 인증을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평가·인증하는 제도로 한국 소비자원이 주관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한다.

동행복권은 건전구매 프로그램, 건전화 캠페인, 동행클린센터 등을 통해 복권 소비자의 과도한 복권 구매를 예방하고 VOC(Voice of Customer) 시스템과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고객의 소리를 청취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사행산업 중 최초로 CCM 인증을 획득했다.

김세중 대표는 “대국민 복권 서비스를 운영하는 동행복권이 CCM 인증을 계기로 더욱 국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국민에게 건전한 즐거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현 기자 dohoney@donga.com

KT, 美전자약 개발사에 500만 달러 투자...디지털치료제 시장 진입

'뉴로시그마' 시리즈 A단계에 투자 전자패치 통해 신경정신질환 치료

KT는 미국 전자약 개발회사 '뉴로시그마'의 시리즈 A단계에 500만 달러를 투자한다고 8일 밝혔다. 6월 뉴로시그마와 업무협약을 맺고 전자약 분야 제품개발과 사업화 협력을 시작한 KT는 이번 지분 투자를 계기로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로시그마는 약물이 아닌 전자패치를 통해 뇌신경을 자극해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 뇌전증 등의 신경

정신질환을 치료하는 전자약 개발 전문 업체다. 2019년 신경정신질환 치료 전자약 '모나크 eTNS'를 개발해 약물 외 치료대안으로서는 최초로 미국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획득했다.

뉴로시그마는 이번 투자 유치를 기반으로 미국 시장에서의 본격 상용화를 추진한다. 또 전자약 적용 범위를 확대해 FDA 승인을 추가로 받기 위한 임상실험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인공지능(AI) 국제대회에서 1위를 차지하며 의료 AI 기술력을 인정받은 KT는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역

량을 바탕으로 eTNS 제품의 차세대 버전 설계 및 개발을 지원한다. 또 KT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과 연동한 모니터링과 AI 분석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한다. 국내 상용화를 위한 임상, 인허가에도 협력할 예정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부장(부사장)은 “양사는 전자약·디지털 치료제 시장에서의 사업 시너지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는 향후 KT가 디지털치료제 시장에 본격 진입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뉴로시그마의 부사장 콜린 킬리 박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 뉴로시그마는 IT와 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 부부장(오른쪽)과 콜린 킬리 뉴로시그마 부사장. 사진제공 | KT

료 분야가 융합된 혁신적인 결과물인 eTNS 제품의 상용화 및 차세대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갤러리 감성 연출”... LG, 올레드 에보 오브제컬렉션 출시

TV에 무빙커버 적용해 다양한 연출 15일부터 판매...출하가는 990만원

LG전자가 공간 인테리어 가전 '오브제'를 확대한다.

LG전자는 올레드TV를 오브제컬렉션으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LG 올레드 에보 오브제컬렉션(65ART90·사진)은 화질은 물론 디자인까지 동시에 원하는 고객을 위한 프리미엄 제품이다.

신제품은 65인치 올레드 에보에 TV 업

계에서 처음 선보이는 '아트 오브제 디자인'을 적용했다. 벽걸이, 스탠드 등 기존 정형화된 TV 설치 방식의 틀을 깬 디자인으로, 벽에 기대거나 밀착시키는 형태로 설치해 차별화된 공간을 연출할 수 있다. 네모난 이젤 형태 메탈 프레임에 화면과 무빙 커버가 각각 위아래로 배치됐다. 고객은 전용 리모컨을 통해 무빙 커버를 위아래로 조정해 화면 일부만 보는 '라인뷰', 화면 전체를 보는 '풀뷰' 등을 연출할 수 있다. 라인뷰에서는 TV를 시청하지 않을 때 에도 시계, 뮤직 모드로 활용할 수 있다.



LG전자는 15일 LG 올레드 에보 오브제 컬렉션 판매를 시작한다. 출하가는 990만원이며, 구매 고객에게 100만 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LG전자는 10일부터 2주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소재 LG베스트샵 더현대 서울에서 예술품 플래그십 스토어 프린트베이커리, 프리미엄 라이스프라이드 샌드위치 등과 협업한 팝업 전시도 선보인다.

한편 LG전자는 2018년 가전과 가구를 결합한 '오브제'를 선보였다. 이후 무선청소기, 로봇청소기,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은 물론 신개념 식물생활가전에도 디자인을 적용하며 오브제컬렉션 제품군을 늘려왔다. 최근엔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도 오브제컬렉션을 론칭하면서 해외 진출도 본격화하고 있다. 향후 중동, 유럽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크래프톤 '썬더 티어원' 글로벌 출시

크래프톤은 '썬더 티어원'을 PC게임 플랫폼 스템을 통해 글로벌 출시했다. 사실상 슈팅 플랫폼 전략적 요소를 특징으로 하는 탑다운 슈팅 게임이다. 게이머는 1990년대 초반 배경의 가상 동유럽 국가 살로비아에서 1급 요원이 되어 특수 작전 부대를 이끌어 나가는 설정으로, 테러리스트 집단에 맞서 싸우게 된다. 싱글플레이, 온라인 개인 간 대전(PvP), 4인 협동 모드를 제공한다. 펍지 스튜디오의 액션&게임플레이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파벨 스몰레브스키는 “개인적으로 시작했던 프로젝트였는데, 크래프톤의 지원 덕분에 의미 있는 도전을 완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권민 | 신하늬 기자 myhuki@donga.com